창작 불교 판소리 '불타전'을 아시나요?

주목! 이 논문

최원섭 연구원의 '불교 창작 판소리 〈불타전〉 연구'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철학〉 제15집에 '불교 창작 판소리 불타전 연구'를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김재영 법사가 사설을 쓰고 안숙선 명창이 작창한 창작 판소리 〈불타전〉을 창작 배경과 판소리 구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정리해 게재 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전통인 국악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퓨전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음악을 현대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전통 음악을 일반인에게 친숙한 서양 악기로 연주한다든지, 일반인에게 친숙한 서양 음악을 전통 악기로 연주한다든지, 전통 음악을 변주하여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를 섞어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한 창작곡을 만들어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를 섞기도 하였다.

음악은 가락과 박자를 기본 틀로 하기 때문에 서양 음악과 다른 전통국악의 가락과 박자를 아무리 변주하더라도 국악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완전한 창작곡이어도 어떤 악기를 사용했느냐와 상관없이 국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악은 '전통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틀이 어느 정도는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국악계는 전승만 되어오던 판소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 이른바 '창작 판소리'를 생산해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창작 판소리 중에 드물게 불교와 관련한 것이 있어 관심을 끈다. 불교 창작 판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판소리를 통해 불교와 국악이라는 한 국문화의 대표 요소가 각각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 판소리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창작 판소리이다.

1955년 〈탕자가〉와 1956년 〈탄일가〉에 이어 1969년 박동진의 〈예수전〉(주태일 작사)을 시작으로 〈성자 이차돈〉 〈김대건전〉 〈부처님전〉 등 종교와 관련한 다양한 창작 판소리가 만들어졌다.

20편에 가까운 종교 관련 창작 판소리 가운데[12] 불교 창작 판소리가 6편(〈성자 이차돈〉 〈부처님전〉 〈사명대사〉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 〈나옹과 요괴의 대결〉 〈팔만대장경〉)이나 되니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 특히 〈예수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연구가 있고 심지어 전반적인 창작 판소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몇몇 연구에서도 비판적이나마 언급을 할 정도이지만, 불교 창작 판소리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이런 사정은 불교계도 마찬가지여서 불교음악의 범주 안에서 명목만 거론되는 정도에 그친다.

이 글에서 고찰하려는 것은 불타의 전기를 다루는 창작 판소리이다. 〈부처님전〉과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로, 특히 안숙선 작창의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안숙선 작창의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계송이 사설을 지은 〈불타 석가모니〉이다. 이것은 불교방송(BBS)이 제작하여 1991년 5월 20일과 21일에 방송한 2시간 분량의 판소리이다. 2부로 방송된 〈불타 석가모니〉 전체는 남아있지 않고 불교방송에 확인하여 후반부 1시간 분량의 음원만 확보하였다. 이 음원에는 불타가 출가 이후 선정을 배우기 위해 두 선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부터 열반까지 담겨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반부 내용은 불타의 탄생과 출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5월 〈불광〉에 실린 안숙선의 인터뷰 기사에는 "1991년 5월 불교방송을 통해 이계송 선생의 사설로 창작 판소리 〈불타 석가모니〉를 성도품까지 2시간여 동안 공연한 바 있다"고 하여 〈불타 석가모니〉의 2시간 분량이 불타의 전체 일생이 아니라 성도하는 대목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안숙선마저도 방송일자를 "연속 방송으로, 주에 한 번, 그다음 주에"라고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1층 법당 팔상성도 중 일부.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과 사문유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부처님의 전기를 판소리로 만든 것이 〈불타전〉이다.

김재영 사설, 안숙선 작창한
창작 판소리 '불타전' 분석해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공연용
법회 구현 가능토록 구성 특징

불타 전기를 내용으로 하는 불교 창작 판소리 음원

작 사	작 창	시 간	시 기	비 고
김재영①	안숙선	1:56:43	2001	도피안사 발매
김재영②	안숙선	1:51:04	1990년대 후반(?)	청보리학림
이계송①	안숙선	59:07	1991	불교방송 제작 (2부 중 제2부)
이계송②	안숙선	12:27	1993	천태예술제 (향마품, 선정품, 성도품)
김병준	오갑순	1:02:08	1996	국악과 양악 혼성

이 〈불타 석가모니〉는 1993년에 열린 '제3회 천태예술제'에서 향마품, 선정품, 성도품 중 일부가 공연되었는데 이것도 음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음원은 필자가 확보한 〈불타 석가모니〉 제2부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제1부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두 번째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는 김재영 사설의 〈불타전〉이다. 이것은 다행히 음원이 남아있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5월 공연 실황을 녹음하여 2004년 두 개의 마그네틱 테이프 형태로 안성 도피안사가 〈명창 안숙선 판소리 불타전〉이라는 제목으로 발매하였다. 여기에는 〈불타전〉 제작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송암 지원의 '인사말'이 담겨 있다.

"성악 중의 성악으로 성인 중의 성인이신 부처님을 한번 이렇게 잘 일대기를 표현해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도는 1987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제가 여기 계시는 김재영 법사님한테 원고를 청탁을 해서 이 〈불타전〉 대본을 처음 만들어서 그해 초파일 날, 석촌동 가면 놀이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숙선 단장님이, 그때는 단장님이 아니셨어요. 안숙선 단장님이 '강생' 편만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재영 사설의 〈불타전〉은 1987년 원고를 만들기 시작하여 그해 부처님 오신날에 우선 '강생' 편을 공연하였고, 이후 전체 원고가 완성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인지 완창 연습에 시간이 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95년에야 처음으로 완창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얼마 동안 완창 〈불타전〉은 도피안사에서 매년 공연되었다.

〈불타전〉은 '1. 강생('청보리학림'에는 강림)' '2. 고뇌와 출가' '3. 고행과 성도' '4. 전법륜' '5. 대열반'의 다섯 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불타전〉의 완창 공연을 전하는 기사에는 '강생' '고뇌와 출가' '고행과 항마성도' '전법륜' '대입멸'로 밝혀져 있다. 이와 같은 〈불타전〉의 구성과, 도피안사에서 제작한 테이프 〈불타전〉(2001)에 비해 '청보리학림'의 〈불타전〉 사설이 적은 부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덜 완성된 것으로 보여, '청보리학림'의 음원은 1995년 완창 때와 테이프 음원 사이의 공연 실황으로 보인다.

안숙선 작창 판소리와 별개로 오갑순 작창의 판소리 〈부처님전〉이 있다. 이것은 김병준이 사설을 써서 1996년 〈명창 오갑순 가야금병창 음성공양 : 창작 판소리 부처님전〉이라는 제목의 음반으로 발매되었는데, 음반 소개에 따르면 "전통 판소리 어법으로 작곡한 뒤 가야금병창으로 옮기고 국악기와 양악기로 혼성반주단을 편성, 새로운 창작국악으로 옮긴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국내 초유 국악 양악의 협연"이라는 의미를 두었다고 하였다.

이상 필자가 확보한 불타 전기를 내용으로 하는 창작 판소리의 음원을 사설 창작자에 따라 분류하면 〈표〉와 같다. 전체 음원은 다섯 가지이지만 사설 창작자는 세 사람이므로 실제로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불타전〉은 부처님오신날이라는 특정한 날을 위하여 만들어진 창작 판소리이다. 이런 점이 "본격적으로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행사에 필요한 창작 판소리를 구성한 측면이 있다"고 음악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바로 그런 점이 〈불타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타전〉은 단순히 부처님의 일대기를 구성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불교 전통의 요소를 반영하여 신행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불타의 일대기를 다루는 창작 판소리이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적인 인물 '불타'의 생애를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의 생애를 통해서 나도 불타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창작 판소리의 목적이다. 따라서 〈불타전〉에는 불타의 중요한 행적이 바로 우리의 일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불타전〉을 시작하면서 찬불게를 암송한 다음에 곧바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고 싶구나.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지이다"라는 발원이 있다. 그리고 〈불타전〉이 끝날 때에는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근 이후에 찬불게를 암송하고 "일체 대중이 해탈열반이오"로 마무리한다. 단순히 불타를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전〉을 듣는 모든 이가 불타처럼 살기를 발원하는 형식이다.

불교 창작 판소리 〈불타전〉은 찬불게 암송으로 시작하여 끝나는 부처님 오신날 법회를 판소리로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판소리 창자가 그 법회의 법사가 되어 판소리의 형식으로 한국불교의 전통과 신행을 녹아낸 불타의 일대기를 설법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 창작 판소리 〈불타전〉의 가장 중요한 불교적 의미일 것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마주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 일 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280~330만원



대만 4박 5일
■ 일 정 불광사–중대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천혜의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
베트남+캄보디아 4박 6일



천불천탑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완벽 순례 5박 6일
■ 일 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불교의 나라,
태국 3박 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